

2022. 12. 12.(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2년 12월 11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경제정책실 국제협력과

국제협력과장	이혜영	2133-5260
국제협력지원팀장	김지현	2133-5274
주 무 관	이미경	2133-5275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8쪽

외국인 노동자 돕고 해외투자유치 지원.. 서울 사랑하는 외국인 18명 '서울시 명예시민' 됐다

- 문화사회복지·교육·경제 등 서울시정에 기여한 16개국 18명 선정, '서울시 명예시민증' 수여
- 1958년 공로시민으로 시작..지금까지 '서울' 위상 드높인 총 100개국 895명 명예시민 선정
- 콘텐츠 수익금 이동 위해 기부, 백신시설 투자 지원, 외국인 사고현장 지원 등 각 분야 활약
- 서울을 제2의 고향으로 택한 '서울명예시민', 앞으로도 서울과 세계 잇는 핵심 가교역할 기대

- 서울시는 '서울'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문화, 경제,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의 위상을 드높인 16개국, 18명의 외국인이 '서울시 명예시민'이 됐다고 밝혔다. 선정된 명예시민에게는 한강수의 색을 바탕으로 하여 서울의 과거-현재-미래를 잇는 모티브를 조형적으로 디자인으로 한 기념 메달과 스톨, 명예시민 증서가 수여되었다.
 - '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'은 1958년 전후 도시재건에 도움을 준 외국인에 '공로시민증'을 수여하며 시작됐다.
 - 현재는 서울 시정 발전에 기여한 서울 거주 외국인들과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원수, 외교사절 등에게 서울시정 발전 공로에 대한 보답과 우호협력 차원에서 수여하고 있다. 지금까지 총 100개국 895명의 명예시민이 선정되었다. (11.30 기준)

〈사회공헌 · 문화 · 경제 · 과학기술 등 다방면에서 시정 기여한 18명 선정〉

- 유창한 한국어 실력과 재치 넘치는 입담으로 ‘인도 아재’로 알려진 방송인 굽타 아비셰크(럭키)(Gupta Abhishek(Lucky), 인도)씨는 올해 명예시민을 대표하여 수상소감을 밝혔다. 럭키씨는 유튜브 채널 ‘354’ 등 다양한 온·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로 서울과 한국의 매력을 알리고 콘텐츠 수익금을 가출 청소년과 소외아동을 위해 기부하는 등 활발한 홍보와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.

- 특히, 이번에 선정된 ‘서울시 명예시민’은 탈북민과 이주민, 다문화가정자녀 등 우리 사회 약자에 대한 꾸준한 자원봉사와 기부 실천으로 이웃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.
 - 케이시 라티그(Casey Lartigue Jr, 미국)씨는 비영리민간단체 ‘북한이탈주민 글로벌교육센터(FSI)’를 설립해 10여년째 운영 중이다. 무료영어교육을 통해 외래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을 돕고, 북한 인권에 대한 실상을 해외에 알리는 등 탈북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활동 중이다.
 - 라마 쿤상 도르제(Lama Kunsang Dorje, 네팔)씨는 생활이 어려운 이주민들에게 매월 쌀 200~300kg을 기부하고, 외국인 노동자 사고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.
 - 아이엔요 티티(Aiyanyo Imatitikua, 나이지리아)씨와 바라이 하시라니(Barai Hasi Rani, 방글라데시)씨는 서울시 ‘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’로서 서울 거주 외국인들의 고충을 전하고 다문화가족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문화가정자녀를 비롯한 서울 거주 이주민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으로 활동 중이다.

- 서울과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와 역사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려 서울과 세계를 잇는 문화 가교가 되어준 이들도 눈에 띈다.
 - **클루드 알알라위(Khaloud Alalawi, 아랍에미리트)**씨는 주아랍에미리트 한국문화원이 개원(2016.3월)되기도 전인 2009년 아랍에미리트(UAE) 내 친한 커뮤니티(UAE loves Korea)를 만들며 한국과 서울에 대한 사랑을 꽃피웠다. 이후 한국문화원이 개원한 해에 ‘K-Culture 서포터즈’로 임명되고, 2018년 첫 한국형 수출 원전인 아랍에미리트(UAE) 바라카 원전 1호기 준공식에서 한국어 사회자로 활약하였으며, 한국과 아랍에미리트(UAE)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연수,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양국 간 문화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.

- 또한, 경제 분야에서도 외국인 투자 유치와 양자·다자간 기업교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서울 거주 기업인과 법조인 등이 명예시민으로 선정됐다.
 - 주요 선정자로는 ▲미국 글로벌 백신 원부자재 기업 ‘싸이티바(Cytiva)’의 對 한국 백신 생산시설 투자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**프란시스 반 패리스(Francis Van Parys, 벨기에)** 싸이티바 아태지역 총괄사장, ▲매년 서울시와 서울투자청, 주한뉴질랜드대사관 등과 함께 ‘뉴질랜드-한국 테크로드쇼’를 공동 개최 등 뉴질랜드와 서울의 테크기업 간 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한 **토니 가렛(Tony Garrett, 뉴질랜드)** 주한뉴질랜드상공회의소 회장, ▲서울에 대한 투자 장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서울-유럽 간 기업 협력 촉진에 기여하고 있는 **디어크 올리버 루카트(Dirk Oliver Lukat, 독일)**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, ▲16여년간 서울에서 법조인으로 활동하며 유럽 기업들의 한국 투자 진출 관련 컨설팅 제공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기여한 **모리츠 페터 빙클러(Moritz Peter Winkler, 독일)** 변호사 등이 있다.

- 뿐만 아니라, 올해는 과학기술 분야 시정 공로자이자,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상위 1% 연구자로 선정된 (출처: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(Clarivate Analytics)) 칸 무하마드(Khan Muhammad, 파키스탄) 씨도 인공지능과 컴퓨터 공학 기술을 활용하여 화재 현장 분석, 비정상 상황 영상 감시 등 시민 안전과 관련된 신기술을 개발하고 특허권을 취득하는 등 과학기술 수준 향상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명예시민으로 선정되었다.
-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불우이웃에 대한 다양한 자원봉사와 기부를 생활화하여 나눔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황전원(Huang Dean-yuan, 대만)
- 매년 장애인복지관, 노인종합복지관, 보육원 등을 순회하며 연 1만여명에게 중식 요리 봉사를 실천하는 ‘엔젤쿡’ 구광신 셰프(Chiu Kuang Hsin, 대만)
- 어려운 이웃에게 후원금과 음식, 구호물품을 기부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수흐체첵 초미도르지(Sukhsetseg Chimiddorj, 몽골)
- 다문화 가정자녀와 중도입국청소년 등에 대한 멘토링과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있는 NGO 활동가 짱 리영(Zhang Liying, 중국)
- 국내 최초 주한키르기즈무역관을 개소하는 등 서울과 한국, 키르기스스탄 기업 교류 확대에 앞장서고 팟캐스트 운영을 통해 러시아어권 이주민들의 소통 창구가 되어준 나드르베코바 굴샤이르(Nadyrbekova Gulsahiyir, 키르기스스탄)
- ‘한-중양아 협력 포럼’, ‘한-타지키스탄 문화의 날’ 등 문화교류행사

지원으로 양국 시민 간 이해도를 높인 우수포브 사만다르(Yusufov Samandar, 타지키스탄)

- ‘온달바보’, ‘종이달’ 등 한-불 합작극 연출·감독 등 다양한 융·복합예술활동으로 한-불 양국 간 문화 가교가 되어준 니콜라 하자드(Nicolas Hazard, 프랑스)씨 등이 2022년도 명예시민으로 선정되었다.

□ 특히, 12월 9일(금)에 진행된 「2022 서울시 명예시민증 수여식」에서는 전년도 명예시민인 프랑스인 판소리꾼 마포 로르(Mafo Laure, 프랑스)씨가 후배 명예시민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판소리 공연을 선보였다.

□ ‘서울시 명예시민증’ 수여 대상자는 서울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 각국 대사관, 공공기관 단체의 장, 사회단체의 장 또는 서울시민 30인 이상의 연서 등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 받아 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공적심사를 거친 후 최종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얻어 선정한다.

□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“명예시민은 전 세계 수많은 도시 중 서울을 제2의 고향으로 택해 사회복지, 문화, 경제, 과학·기술 등 각계각층에서 서울을 빛낸 주인공들”이라며, “향후에도 명예시민이 서울과 세계를 잇는 핵심적인 가교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, 서울시 또한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열심히 뛰겠다”고 덧붙였다.

- 붙임. 1. 2022 서울시 명예시민증 수여식 행사 개요 1부
2. 2022 서울시 명예시민 수상자 명단 1부. 끝.

□ 행사개요

- 일시/장소 : 2022. 12. 9(금) 16:00~17:00 / 8층 다목적홀
- 참석대상 : (서울시)행정1부시장, 국제관계대사, 경제일자리기획관
(참석자)신규 명예시민 18명 및 축하자 등 100명 이내
- 주요내용 : 명예시민증서 및 메달 수여, 영상상영, 기념촬영 등

2022 시정공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일정

- ▶ '22. 5~6월 : 명예시민 추천공고 및 접수
- ▶ '22. 8월 : 후보자 적격심사 및 심사위원회 개최
- ▶ '22. 9월 : 시의회 수여동의안 상정 및 의결
- ※ 수여 실적 : 100개국 895명('22.11.30. 기준)

계	외국귀빈	시정(국정)유공	국제대회 참석 등
895	180	545	170

□ 행사일정(안)

15:50 (10')	착석안내 및 영상 상영	○ 서울시 홍보영상
16:00 (2')	개회 및 내빈 소개	○ 사회 : 국제협력과장, 영어통역
16:02 (5')	명예시민 선정 소감 영상 상영	○ 명예시민 선정 소감 영상 사전 제작
16:07 (4')	행정1부시장 인사말씀	○ 한국어 연설 / 순차 통역
16:11 (4')	명예시민 선정 소감(대표자)	○ 굽타 아비셰크(인도) 한국어 연설 / 순차 통역
16:15 (17')	명예시민증 및 메달 수여 기념 촬영(개별)	○ 개별 호명하여 명예시민증, 메달 수여 ○ 수여 후 개별 기념촬영
16:32 (2')	기념 촬영(단체)	○ 행정1부시장, 신규 명예시민(18인)
16:34 (5')	축하공연	○ 판소리 공연(마포 로르('21 명예시민, 프랑스))
16:39 (1')	폐회	○ 행정1부시장 퇴장
16:40 (20')	개별 기념촬영 지원	○ 무대 및 포토월 개별 사진촬영 지원

붙임2

2022 서울시 명예시민 수상자 명단(18명)

※ 국가(지역)명 가나다순

연번	사 진	성 명	국 가 (지역)	공 적 요 약
1		아이엔요 티티 (Aiyanyo Imatitikua)	나이지리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등회, 한식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세계 각국에 알리는 데 기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코리아넷 명예기자단', '지방외교 외국인홍보단' 활동 등 '성북구 청년 서포터즈('19~'22)'로서 각종 지역사회 정보를 한국어와 외국어로 번역하여 내·외국인에게 제공 북한 새터민과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료 영어 수업 등
2		라마 쿤상 도르제 (Lama Kunsang Dorje)	네 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국 거주 네팔 이주민에게 의료통역봉사, 문화교류 등 지원 외국인 치안봉사단 활동 및 순찰 봉사, 외국인 노동자 사고 현장 지원 네팔 유학생 및 해고된 여성들에게 매월 쌀 200~300kg 지원
3		토니 가렛 (Tony Garrett)	뉴질랜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한뉴질랜드상공회의소 회장('15~현재)으로 약 7년간 한-뉴질랜드 간 기업협력 강화 및 무역 관계 발전에 기여 서울시, 인베스트서울센터 등과 '뉴질랜드-한국 테크로드쇼'를 공동으로 개최, 상호 기업투자 및 비즈니스 활성화에 기여 웰빙 시장 서울시 방문 및 서울-웰빙턴 우호협력도시 체결('16) 지원 홍제동 소재 '송죽원아동복지센터' 모금활동 및 자원봉사 참여
4		황전원 (Huang Dean-yuan)	대 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울시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기부활동과 선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부, 어르신 무료급식 등 자원봉사 지속 참여 - 사회복지모금공동회 공로 표창 수상('22), 서울특별시의회 지역사회발전 유공 표창 수상('21) 등
5		구광신 (Chiu Kuang Hsin)	대 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울시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과 선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사)중찬문화교류협회 '엔젤죽요리봉사단' 활동을 통해 장애인복지관, 고아원 등 연 1만명에 직접 중식 요리 봉사 서울의 음식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림으로써 위상 제고에 공헌 서울시 소재 교육기관을 통해 한국식 중식발전과 후진 양성에 이바지
6		모리츠 페터 빙클러 (Moritz Peter Winkler)	독 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법률 자문과 서울 투자 장점 적극 홍보로 유럽권 투자자 유치 기여 약 10여년간 (사)독한법률학회 회원으로서 한-독 법률 교류를 강화하고, (사)한독협회 이사로서 양국 문화교류 협력 증진에 일조 서울독일국제학교 이사장('15~)으로 한-독 미래인재 양성에 이바지
7		디르크 올리버 루카트 (Dirk Oliver Lukat)	독 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('20~)으로 서울-유럽 간 기업교류 활성화, 외국인 서울 투자유치 확대에 기여 한국과 서울의 미래 주역인 청년을 대상으로 '주한유럽상공회의소 미래발전포럼' 기획 및 개최('20~) 서울시 취약계층을 위한 자선활동 지속 실천('17~)
8		수흐체첵 츠미도르지 (Sukhsetseg Chimiddorj)	몽 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울시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기부와 자선활동 지속 실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취약계층 후원금 전달, 무료급식소 물품 기부, 김장 나눔 등 코로나19로 한국에 체류 중인 몽골인들에게 음식과 구호물품 기부
9		케이스 라티그 (Casey Lartigue Jr.)	미 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비영리민간단체 '북한이탈주민 글로벌교육센터(FSI)'를 설립하여 약 9년간 탈북민 무료 영어 수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주한미국대사관과 연계하여 약 5년간 탈북 청소년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('18~'22)함으로써 미래인재 양성 및 한-미 가교역할 수행 국내외 언론 및 국제기구 등에 북한 인권 이슈 등을 알리고,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인권 활동 지속적으로 전개

연번	사 진	성 명	국 가 (지역)	공 적 요 약
10		바라이 하시 라니 (Barai Hasi Rani)	방글라데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사회 이주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 꾸준히 실천 - 서울시 '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' 활동('21~) - 용산구 다문화 센터 이주민 가정 대상 교육 및 자원봉사('18~'21)
11		프란시스 반 패리스 (Francis Van Parys)	벨기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국 대표 백신기업 싸이티바(Cytiva)의 아태지역 총괄로서 한국 바이오 의약품 산업 성장 및 한미백신협력 강화에 기여 - '21년 싸이티바의 한국 백신 생산시설 투자결정에 핵심 역할 수행 ○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디스커버리 센터 개장('21)을 주도, 바이오 분야 인재 양성과 스타트업 지원에 공헌
12		클루드 알알라위 (Khaloud Alalawi)	아랍에미리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오랜 기간 서울과 한국의 문화를 해외에 홍보하여 위상 강화에 기여 - '09년부터 UAE 내 친한 커뮤니티 운영 주도, 주아랍에미리트 한국문화원 'K-Culture 서포터즈' 활동 등('16) ○ 팬데믹 상황 속 원자력 분야 필수 기술 인력의 한-UAE 간 이동을 지원함으로써 양국 원자력 협력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 ○ 서울시 소외계층을 위한 연탄나눔봉사, 김장나눔 봉사 등 참여
13		굽타 아비셰크(럭키) (Gupta Abhishek (Lucky))	인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다양한 온·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울과 한국을 매력적인 곳으로 홍보, 콘텐츠 수익금 기부 등 사회 환원 - 유튜브 채널 '354' 운영 수익금 '안나의 집' 기부 ○ 'I SEOUL YOU' 유튜브 캠페인 참여를 통해 서울시 홍보 ○ 다양한 TV 예능 프로그램, 세미나 등 참여로 한국과 인도 문화에 대한 정보를 대중과 공유, 양국 문화 이해도 제고에 기여
14		짱 리영 (Zhang Liying)	중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다문화가정 자녀와 중도입국청소년들의 한국 정착 지원 -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봉사활동 분야 중랑구청장 표창 수상('19) ○ 중랑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활동을 통해 시민안전에 기여('16~) ○ 서울장미꽃축제, 중국인의 날 등 다양한 市, 자치구 주최 행사에 문화체험 부스 운영을 통해 한-중 문화 이해도 제고에 기여
15		나드르베코바 굴샤이르 (Nadyrbekova Gulshair)	키르기스스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시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기부활동과 선행에 앞장섬 - 안나의 집 음식나눔 봉사, 국제여성협회 바자회 수익금 기부 등 ○ 주한키르기스무역관 개소('22.6.25)를 통해 한국과 서울-키르기스스탄 기업 간 경제교류 활성화에 기여 ○ 중앙아시아문화예술협회 '아이-페리(Ai-Pery)' 활동을 통해 서울 시민과 중앙아시아 주민 간 문화교류 활동 촉진('17~'18) 등
16		유수포브 사만다르 (Yusufov Samandar)	타지키스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국제교류재단(KF) '한-중앙아 협력 포럼' 서울 개최 지원 ○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타지키스탄 선수 지원 ○ 타직커뮤니티 회장으로 서울 거주 타지크인들의 정착 지원 ○ 2017 한-타지키스탄 문화의 날 개최 지원 등
17		칸 무하마드 (Khan Muhammad)	파키스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공지능과 컴퓨터공학을 활용한 시민 안전 관련 신기술 개발을 통해 시민 안전 증진에 기여 ○ 다양한 대내외 학술 활동과 뛰어난 연구업적을 통해 서울과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한층 끌어올림 - 한국에서 연구하는 외국인 연구자 중 유일하게 '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상위 1% 연구자'로 선정, '성균 노벨상후보 특별상' 수상('22)
18		니콜라 하자드 (Nicolas Hazard)	프랑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 소재 프랑스 학교(하비에르 국제학교) 교사이자 연극 감독으로서 한-불 문화교류 증진에 기여 - 'LA LUNE EN PAPIER(종이달)' 연극 서울·파리 동시개봉('16), 프랑코포니 서울 연극축제 '온달바보('17) 연출 및 감독 등 ○ 한국과 프랑스 작가들의 예술활동 적극 지원